

# 16강 넘어 8강으로... 23개 '태극 심장'이 뛴다



홍명보호 예상 베스트 11

### ■ 브라질 월드컵 최종 명단(23명)

- ▲GK=정성룡(수원)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
- ▲DF=김진수(니가타) 황석호(히로시마)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객대휘(알 힐랄) 이웅(울산) 김창수(가시와) 윤석영(퀸스파크레인저스) 김영권(광저우 헝다)
- ▲MF=기성용(선덜랜드) 한국영(가시와 레이슬) 하대성(베이징 귀안) 박주영(광저우 부리) 김보경(카디프시티) 이청용(볼턴)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손흥민(레버쿠젠)
- ▲FW=구자철(마인츠) 이근호(상주) 박주영(왓퍼드) 김신욱(울산)

홍명보호 브라질월드컵 일정	일시(한국시각) 장소 일정	12일 파주 NFC 대표팀 소집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튀니지와 평가전	6월 10일 마이애미 가나와 평가전	11일 마이애미→포스두이구아수 브라질 입성	18일 오전 7시 쿠이아바 러시아와 조별리그 1차전	23일 오전 4시 포르투알레그리 알제리와 조별리그 2차전	27일 오전 5시 상파울루 벨기에와 조별리그 3차전
----------------	----------------	-------------------	-----------------------	---------------------	-------------------------	------------------------------	---------------------------------	------------------------------

## “박주영 대체할 선수 못찾아 부상 박주호 탈락 가장 힘들었다”

### ■ 홍명보 감독 인터뷰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홍명보호'의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홍 감독은 8일 경기도 파주 NFC(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6월 개막하는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홍 감독은 “여러분께서 저희 팀을 비유할 때 ‘홍명보호’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 세월호 사고를 통해 제가 갖게 된 무한한 책임을 알게 됐다”며 “사명감으로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불씨를 전하 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 감독은 명단 발표 직후 선수 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어제저녁에 23명을 정했고 우리가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 가운데 가장 힘든 도전을 해야 하는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안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점검해서 선수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이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왼쪽 풀백 박주호였다”며 “박주호는 아직 실밥도 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얼마나 회복이 될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부상 재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또 “이명주도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포지션별 경쟁에 따라 선택하기 어려웠다”며 “포항에서 뛰는 포지션에서는 우리 공격수들과 경쟁이 불가피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서는 기성용, 한국영, 하대성과 경쟁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월 전지훈련 때 가능성을 보려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주문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주영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모든 선수와 똑같이 해왔다고 보지만 박주영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박주영을 대체할 선수를 찾지 못했고 우리 팀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발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은 대표팀의 특성에 대해 “젊고 빠른 팀”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기성용-지동원·윤석영-김보경 '선봉'

광주·전남 출신 활약 기대... 28일 튀니지와 평가전·6월 11일 브라질 입성

‘홍명보호’가 박주영(왓퍼드)-이근호(상주)-김신욱(울산)의 공격진 트리오로 한국축구 사상 첫 월드컵 원정 8강 진출에 도전한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8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최종명단 발표식’을 갖고 월드컵 본선 무대를 빛낼 23명의 태극전사를 공개했다. 금호고를 졸업한 ‘광주의 아들’ 기성용(선덜랜드)을 비롯해 장흥초·중을 거쳐 광양제철고와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윤석영(퀸스파크레인저스) 역시 전담에서 프로 유니폼을 입은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구례의 아들’ 김보경(카디프시티) 등 지역 출신 선수들도 꿈의 무대를 밟는다. 원톱 스트라이커로는 예상대로 봉와직염으로 조기 귀국해 치료와 재활을 해온 박주영이 발탁됐고, 이근호·김신욱·구자철(마인츠)이 원톱 스트라이커 자원으로 선택됐다. 구자철은 새도 스트라이커로 원톱 스트라이커를 지

원하는 2선 공격수 역할을 맡게 된다. 왼쪽 날개 공격수에는 손흥민(레버쿠젠)-김보경이 오른쪽 날개 공격수에는 이청용(볼턴)-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발탁됐다. 홍 감독이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미드필더 자리에는 기성용과 함께 하대성(베이징 귀안), 한국영(가시와 레이슬)의 이름이 올랐다. K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명주(포항)는 탈락의 쓴 잔을 마셨다. 대신 ‘독도 세리머니’의 주인공 박주영(부산)이 ‘홍명보호’에 승선했다. 이명주는 최근 K리그에서 9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달성하며 승선을 노렸지만 홍 감독은 공격성향이 강한 이명주 대신 수비에 능한 박주영을 선택했다. 홍 감독이 가장 신경을 쓴 포백(4-back) 자리에서는 김진수(알비렉스 니가타)와 이웅(울산)이 좌우 풀백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김영권(광저우 헝다)-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는 중앙 수비수로 선발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좌우 풀백 백업 자원으로 윤석영과 김창수(가시와 레이슬)가 합류했고 베테랑 수비수 객대휘(알 힐랄)와 황석호(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중앙 수비를 보조할 백업 요원으로 자문을 받았다. 객대휘는 이번 발탁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무릎 인대 부상을 당했던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됐다. 윤석영과 왼쪽 풀백 자리를 경쟁했던 박주호는 봉와직염 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축구협회는 최종명단 23명과 비공개한 예비명단 7명을 합친 30명의 예비 명단을 이날 FIFA에 보냈다. 23명의 최종명단은 한국시각으로 6월3일 오전 7시까지 제출하게 된다. 축구 대표팀은 오는 12일부터 파주NFC에서 소집훈련을 시작하며 28일 튀니지와 국내 마지막 평가전 이후 30일 최종 전지훈련지인 미국 마이애미로 출국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